

음악회로 벤처기업인에 힘 불어넣는다

1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서 세계적 성악가 석상근·김경란 듀오 콘서트 개최

전주에서 코로나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벤처기업을 운영하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인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가 열린다.

오는 10일 오후 5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5층(본관) 그랜드볼라홀에서 바리톤 석상근과 소프라노 김경란의 듀오 콘서트를 열어 벤처기업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드려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음악을 사랑하는 공통분모를 가진 전북벤처기업협회 이인호 회장과 서울에서 수출입업을 하는 나래코리아(대표 김생기)가 함께 의기 투합하여 '벤처기업인과 함께 하는 나래코리아 54회 연주회'로 명명하여 개최된다.

출연하는 성악가는 성악의 본고장 이탈리아와 독일에 유학하며 유럽 콩쿠르 7개 상을 휩쓸어 대한민국 성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바 있는 석상근 성악가가 첫째 곡은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에 나오는 피가로의 아리아 'Largo al factotum della città (나는 이 도시 최고의 이발사)'를 들려준다. 연이어 둘째 곡은 현재명이 작사·작곡한 한국 가곡 '희망의 나라로'를 들려주어 벤처기업인들에게 코로나 시국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최고의 기업인이 되어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내어 기업을 경영하도록 용기를 북돋워 줄 예정이다.

소프라노 김경란은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수석 졸업하고, 이어서 프랑스 말메종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을 수석 졸



벤처기업인과 함께 하는 나래코리아 54회 연주회

업하여 한국 성악의 우수성을 세계 속에 빛낸 인재로 현재 성신여대에 출강하고 있다.

첫째 곡은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 중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밤새도록 춤 출수 있다면)'을 부른다. 이어서 둘째 곡은 한상여 작사·최영섭 작곡의 국민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불러 통일의 염원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음악을 선사하여 벤처기업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준다고 한다.

두 사람은 듀엣 무대 역시 크게 기대가 된다.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에서 돈 조반니가 체를리나를 유혹하면 부르는 이중창 'La ci darem la mano(저기서 우리 손을 잡아요)'를 불러 세계적 성악가 듀엣 공연을 통해 아름다운 음악의 곡을 선사한다.

감동적인 수화통역사의 노래도 선보여서 감동을 더한다. 들을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농아인들의 어려움을 살펴보는 취지로 전라북도 농아인협회 전주지회 소속 6명의 수화통역사들이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과 인순이의 '아버지'를 손으로 노래하여 잔잔한 감동을 전한다.

콘서트를 주최하는 전북벤처기업협회 이인호 회장은 "코로나 시국에 벤처기업 활동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예술을 통해 어렵고 힘든 일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음악회를 마련했다"며 "비록 우리가 가야할 길이 아무리 높고 험해도 음악을 통해 앞으로 세상에 힘차게 나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 자신도 "코로나 시국에 벤처기업을 경영하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잘 이겨내어 벤처기업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기업인으로 우뚝 서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너무 좋았다"고 밝혔다.

김생기 대표도 "코로나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없는 국경 장벽 속에서도 수출입업을 진행하는 어려움을 음악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며, "음악이야말로 인간에게 꼭 필요한 자양분"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굿즈로 문화유물 알린다

국립전주박물관, 굿노트 템플릿·모바일 배경화면 드림 행사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6일부터 태블릿PC와 모바일폰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굿즈 '굿노트 템플릿'과 '모바일 배경화면'을 국민에게 알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굿노트 템플릿'에는 월간 다이어리와 자유로운 기록이 가능한 무지 다이어리, 자신만의 전시 후기를 담을 수 있는 전시 다이어리 속지가 담겨있다.

월간 다이어리 속지와 전시 다이어리 속지는 전주의 옛 한지 느낌을 살려 제작, 국립전주박물관의 대표 유물인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 '청자 모란 구름 학무늬 매병' 등의 스티커를 통해 실제 다이어리처럼 꾸밀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무지 다이어리 속지 역시 국립전주박물관이 소장 중인 선비 서화가 이정직의 '묵죽도 6폭 병풍'을 주제로 만들어져 선현들의 지혜가 담

긴 작품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함께 제공되는 '모바일 배경화면'은 1월의 '전 나수정 범종'을 필두로 박물관의 대표 유물들을 주제로 매월 바꿀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한편 국립전주박물관은 디지털 굿즈 드림과 함께 오는 25일까지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내려 받은 '굿노트 템플릿' 혹은 '모바일 배경화면'을 사용하는 모습을 찍어 개인 SNS에 올리고 댓글로 링크를 달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굿노트 템플릿'과 '모바일 배경화면'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국립전주박물관 홍보 담당자는 "이번 디지털 굿즈 드림을 통해 박물관의 전시 및 문화행사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며, "특히 국립전주박물관만의 특징을 살려 디지털에 특화된 젊은 세대에 지역 문화유물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제6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2021년 12월 10일(금) 오후 5시~

전주한옥마을 특설무대(경기전 앞)

주최: 전주매일신문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임대청 감독 '말리 언니' 통일부장관상

제1회 통일문화영화제서 수상

(사)통일문화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통일부가 후원하여 지난 5일 압구정CGV에서 개최한 제1회 통일문화제가 성료됐다.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인해 약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영화제에서 영예의 통일부장관상은 임대청 감독의 다큐 영화 '말리 언니(Molly's Home)'가 수상했다.

6.25 전쟁 직후 전쟁고아를 돌보던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미국 간호대를 갓 졸업한 '말리 홀트(Molly Holt)'는 한국에서 전쟁 고아를 돌보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가족없는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평생을 고아원에서 헌신했다. 이 다큐는 1956년 21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으로 와 장애고아들의 영원한 '언니'로 살다 2019년 우리 곁을 떠난 말리 홀트의 일생을 담담한 내레이션 형식으로 풀어냈다.

수상 소감에서 임대청 감독은 "이 영화는 결이 다른 영화로 낯설어서 외면 받을 수 있는 영화인데 대상인 통일부 장관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크게 응원 받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시작도 하지 못한 애절한 사랑 얘기를 그린 한동균 감독의 '나와 내타사와 흰 담나

귀'가 우수작품상을, 철거동네에서 고양이가 되는 언니를 묘사한 박은경 감독의 '언니는 고양이'가 감독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외에 어린이 집에서 혼혈아 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얘기를 그린 김달리 감독의 '한나 때문에'와, 취업 전선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그린 정혜운 감독의 감독의 '변절'이 심사위원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

"잊혀져 갔던 '말리 언니'를 다큐로 조명 한 임대청 감독의 발굴이 이번 영화제 최대의 수확"이라고 밝힌 이상엽 집행위원장은 "이제 겨우 1년동안 준비한 영화제가 끝나서 매우 흥분하다"며 즐거운 송년모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영화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힘이 있다. 통일문화영화제를 통해 남과 북이 서로 이해하고 평화통일을 향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화제 개막을 축하했다.

한편 이번 영화제 행사를 위해 최용천 대표가 자연을 담은 화장품 100개(시가 280만원 상당) 그리고 (주)서울리거에서 마스크 1,000매(시가 33만5,000원 상당)를 각각 후원했다.

/김재훈 기자

완주군 상관면, 신정일 작가 초청 인문학강좌

완주군 상관면이 <신 택리지> 저자 신정일 작가를 초청해 인문학강좌를 열었다.

6일 상관면에 따르면 강좌는 '정여립 선생의 일대기 및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재정립'을 주제로 지난 2일 열렸으며, 도성재생대학을 수강한 수강생과 일반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신 작가에 따르면 상관면에서 태어나 촉망받는 선비였던 정여립은 24세에 문과 급제하고 예조좌랑과 홍문관 수찬에도 올랐을 정도로 재주와 학식이 뛰어났으며 당시 불합리한 시대 상황에 맞선 선각자였다고 주장했다.

정여립은 당시의 엄격한 왕조시대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이 평등한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었으며 '왕위세습'을 부인하고 혈연이 아닌 능력주의를 주장한 한 공화주의자였다.

신 작가는 "모든 이가 평등하다는 정여립 사상이 동학혁명으로 이어졌다"며 "정여립선생의 생가터 복원과 함께 전주부 남쪽 관문인 '민바관' 조성사업으로 상관을 호남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자"고 역설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북대 박물관, '배리어프리 영화' 무료 상영

전북대학교박물관(관장 홍찬석)이 장애와 관계없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해 배리어프리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박물관이 4년째 마련하고 있다.

배리어프리는 장벽(barrier)과 단어와 없음(free)의 합성어로, 배리어프리 영화는 자막과 음성해설을 통해 시각·청각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다. 8일 오후 2시 '핑크홀' 상영을 시작으로 22일 '뽕뽕'을 상영한다.

영화 상영뿐 아니라 일반인 관람객에게 안대와 귀마개를 제공해 배리어프리 영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감의 장소 마련된다.

이 밖에도 수어버튼 만들기, 점자 스티커 붙이기, QR코드 전시해설을 통한 전시실 탐방 등 장애에 대한 이해와 개선의 장이 되도록 했다. 한편,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및 체험행사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선착순 예약신청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학교박물관 학예실(270-4088)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